

정치력이 필요한 순간



김혁석 칼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이 한달 넘게 치열한 전쟁을 벌인 후 휴전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을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라고 말했다. 이는 전쟁이 본래 정치가 풀어야 할 갈등을 끝내 정치로 해결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비극이라는 뜻으로 읽힌다.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이 끝내 대화와 타협에 실패할 때, 그 빈자리를 무력과 폭력이 대신한다. 이런 맥락에서 전쟁의 가장 큰 책임은 결국 정치에 있다. 외교 채널이 있고, 국제기구가 있고, 전화와 화상회의, 실시간 통신망까지 모두 갖춰진 시대에 지도자들이 직접 소통하지 못해 미사일과 폭탄으로 말을 대신한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다.

이런 현상은 국제정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정치 역시 정치를 정치로 풀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 왔다. 여당과 야당은 대화와 양보를 통해 합의를 이루기보다 강경 대치에 몰두했고, 그 결과

정치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거리의 분열과 사회적 갈등으로 번졌다. 정당 내부의 갈등조차 스스로 조정하지 못한 채 법원으로 가져가는 일도 흔하다. 판결이 나와도 승복과 수습으로 이어지기보다, 또 다른 갈등의 출발점이 되곤 한다. 정치가 사법으로 넘어가고, 협상이 소송으로 대체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하다고 할 수 없다.

정치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정치력이다. 정치력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기술이 아니라, 충돌을 조정하고 이해를 절충하며 모두가 감당할 수 있는 해법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다. 진영 논리에 갇혀 자기 지지층만 바라보는 자세로는 결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지도자라면 눈앞의 유불리를 넘어 더 큰 공동체의 이익을 봐야 한다. 내 편의 박수보다 국민 전체의 안정을 우선해야 하고, 당장의 승리보다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질서를 고민해야 한다.

특히 지금은 그런 정치력이 더욱 절실한 시기다. 경제는 세계와 촘촘히 연결돼 있고, 안보와 에너지, 물가와 환율이 한순간에 서로를 흔든다. 여기에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까지 더해지면서 사회의 의사결정 구조, 일자리, 인간관계의 방식마저 빠

르게 바뀌고 있다.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는데, 사람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는 오히려 퇴행한다면 그 사회의 미래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기계가 정보를 처리하는 시대일수록, 사람은 더 깊이 대화하고 더 성숙하게 합의해야 한다.

오는 6월 3일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린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이 선거는 우리 일상과 가장 가까운 정치를 결정하는 자리다. 일부 지역에서는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유권자의 책임이 막중하다. 투표는 불만을 표현하는 가장 평화로운 방식이며, 사람의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장치다. 정치를 혐오한다고 해서 정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좋은 정치인을 외면한 자리는 더 나쁜 정치가 차지할 뿐이다. 유권자들은 누가 더 자극적인 말을 하는지보다, 누가 더 책임 있게 대화하고 조정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 적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을 줄일 줄 아는 사람, 상대를 모욕하는 사람이 아니라 설득할 줄 아는 사람, 자기 편만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유통·정책부장 vbkim11@metroseoul.co.kr

은행과 인공지능



기지수첩 안승진 (금융부)

은행들이 인공지능(AI) 활용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챗봇, ARS 등 고객 상담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됐던 AI는 대출 심사나 상품 추천까지 그 영역을 확대했다. 은행원이 맡았던 각종 업무들이 AI에게 넘어가면서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AI를 마주할 일이 많아졌다.

국내 은행들이 AI 도입에 속도를 내는 것은 비용 효율화 때문이다. 디지털금융의 보급으로 점포 운영의 효율성은 낮아졌고, 금리 인하나 대출 규제 등을 이유로 기존 수익 구조가 흔들리면서 운영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수익성 개선 전략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완성도가 떨어지는 AI를 소비자 업무에 도입하면서 소비자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은행권에서 챗봇, ARS 등에 활용하는 AI는 챗GPT, 제미니 등 상용 생성형 AI와 비교해 성능이 뒤쳐진다. 망분리 규제에 따라 기존 상용 모델 도입이 제한적인 만큼 자체 개발 모델을 활용하고 있어서다. 해당 AI 모델들은 앱 기능 연결, 상품 설명 이외의 기능 정도만 제공할 수 있으며, 답변의 정확도도 떨어진다. 고객의 체감도 나빠질 수밖에 없다.

금융소비자들은 금융업을 전문적인 서비스업으로 인식한다. 은행원은 고객에게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고객이 상품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는지 확인한다. 고객은 마주앉은 은행원이 복잡한 절차와 상품에 대한 책임을 공유한다고 믿는다. 고객 요청에 대한 '피드백'이 불충분하며, 때때로 부적절한 답변을 내놓는 AI에

소비자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다.

AI는 시행착오를 겪고 이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성능이 향상된다. 그러나 불편을 겪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은행들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불편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 '미완성 AI'의 도입이 늘어날 수록 은행을 향한 신뢰도 저해될 수밖에 없다. '신뢰의 산업'인 은행업에는 치명적이다.

AI의 도입은 거스르기 어려운 흐름이다. 은행의 수익성 개선과 비용 효율화는 소비자의 금융비용 절감으로도 이어진다. 은행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로운 '윈-윈(Win-Win)'이다. 그러나 소비자의 불편함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은행들은 미완성의 인공지능을 각종 업무에 경쟁적으로 도입하기보다, 소비자들이 편안함을 느끼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존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더 힘써야 할 시기다. /asj1231@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22일 (음 3월 6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공허로운 재물을 탐내지 마세요. 60년생 지병만 아니라면 조금씩 차도가 있겠습니다. 72년생 외롭고 서러운 마음이 듭니다. 84년생 미룰 수 있는 여행이라면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49년생 매대는 이루어지기 어렵겠습니다. 61년생 이거 나가야 하는데 너무 지쳐 있습니다. 73년생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85년생 이상형을 찾아 나서지만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50년생 문제가 하나씩 해결이 되면서 원만하게 풀려 나갑니다. 62년생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세요. 74년생 더욱 큰일에 몰두하세요. 86년생 원하는 곳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51년생 여행을 하게 되면 고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63년생 민낫천적인 성격에 술을 자주 마시게 됩니다. 75년생 금전운이 매우 좋습니다. 87년생 신의를 두텁게 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52년생 신의를 저버리면 큰 해를 당하는 운입니다. 64년생 어려운 일이 쉽게 풀리게 되는 좋은 시기입니다. 76년생 과음은 피하세요. 88년생 신의를 두텁게 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53년생 사방을 향한 산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65년생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라고 봅니다. 77년생 노력한 만큼의 결실은 맺어지겠습니다. 89년생 능력을 심본 발휘해 볼 시기입니다.



54년생 밖으로 나간다면 좋은 친구를 만날 것입니다. 66년생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이루겠습니다. 78년생 금전상으로 약간의 손실이 있겠습니다. 90년생 동남방에 귀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55년생 모든 일이 순탄하게 이루어집니다. 67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79년생 작은일에 몰두하면 큰 것을 잃습니다. 91년생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세요.



56년생 주변에 잘해주는 이들을 주의하세요. 68년생 밖에 나가면 마음이 편합니다. 80년생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마세요. 92년생 일이 여의치 않으니 마음에 번민이 많습니다.



57년생 다른 일을 기획해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69년생 건강운이 길하지 못합니다. 81년생 소극적인 자세로는 꿈을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93년생 하는 일을 다음 기회로 미루어 보도록 하세요.



58년생 바라던 모든 것이 때를 만난 듯 합니다. 70년생 가까운 이들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82년생 성공하기 좋은 때입니다. 94년생 주변에서 도움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59년생 체력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71년생 개업이나 전업은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83년생 부모님에게 안부전화를 하세요. 95년생 기회란 늘 오는 것이 아닙니다.



김상회의四季 암도진창, 인생의 파도 넘기

암도진창이라는 병명은 중국 36계 중에서 여덟 번째 전략이다. 겉으로는 잔도를 보수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진창으로 몰래 건너간다는 뜻이다. 초한지에서 유방이 항우를 속이고 한중을 벗어나 천하를 도모할 때 사용한 이 전략은, 상대를 안심시키기 위해 보여주는 것과, 승부를 결정짓는 실제 움직임을 분리하는 고도의 심리전이다. 이는 단순한 기만술이 아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상황이 무르익을 때까지 내실을 다지는 삶의 전략이라고 하는 게 적절하다. 현대인들은 자기를 과시하고 내보이는 셀프 마케팅에 익숙하다. SNS 등으로 자기가 이룬 것들을 자랑하기 바쁜 시대에 오히려 정면대로 숨기고 감추면서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왜 결과가 없느냐고 항변하는 이들이 많다.

사주를 들여다보면 대개 기운이 밖으로만 발산되어 정작 알맹이가 차오를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허다하다. 암도진창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들은 남들에게 보여줄 잔도를 닦는 데만 모든 힘을 쏟느라 진창을 건널 군사를 키우지 못한 셈이다. 명리에서 인성이 부족하고 식상만 과한 형국이다. 직장인이자면 주어진 업무에 충실한 것도 중요하지만, 뒤에서는 자기 미래를 위한 전문 지식을 쌓거나 제2의 인생을 설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진창을 건널 군사를 키워놓았을 때, 운의 흐름이 열리는 시기가 오면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이 빛을 발한다. 주변에서 보면 갑자기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동안 쌓아온 노력의 결과인 것이다. 인생이라는 바다를 헤쳐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항해술이 필요하다. 드러나지 않는 시간 속에서 지혜를 쌓고 힘을 길러야 험한 파도를 넘어갈 수 있는 실력이 만들어진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2	1	7		3		
	6	5						2
							4	
				1	7	6	9	
5								8
4	7	1	9					
	3							
9						6	7	
	1		3	6	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기의 월드레코드를 추구하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7	6	8	9	9	8	2	1	2
8	2	9	7	2	1	8	9	6
1	9	2	6	2	8	7	8	9
9	2	8	9	8	6	1	2	7
8	1	7	2	8	2	9	6	9
6	9	2	1	7	5	2	8	8
2	7	6	8	9	9	8	2	1
2	8	1	8	6	7	9	9	2
9	8	9	2	1	2	6	7	8

2	8	9	2	9	7	1	6	8
1	6	8	9	8	2	7	7	9
2	9	7	8	6	1	8	2	9
6	9	9	7	1	8	2	8	2
8	2	2	8	9	6	7	9	1
7	1	8	9	2	2	9	8	6
8	8	1	6	7	9	9	2	2
9	2	2	1	8	8	6	9	7
9	7	6	2	2	9	8	1	8